

Epilouge(LLM_Doc)

[달빛 연못]

개구락이가 아직 두 발로 멀리 뛰지 못하던 시절, 그는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마을의 또래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재잘거리며 수영을 즐길 때도, 개구락이는 그 옆에 있는 돌맹이 위에서 떨어질까 봐 벌벌 떨기만 했다. 물은 깊고 차가우며, 자신을 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다.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고, 어느 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연못으로 데려갔다. 그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 불리며, 수면에 비친 달빛이 마치 은빛 천처럼 퍼지는 신비한 장소였다. 마을에서는 이 연못을 '개구리 가문의 첫 수영터'라 불렀고, 아이들은 모두 그곳에서 처음으로 물과 인사를 나눈다.

그날은 벚꽃이 거의 다 진 초봄의 끝자락, 늦은 오후였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초록 이끼가 자라 있었고, 나뭇잎이 둥글게 말려 앞배가 되어 뚱뚱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새소리와 먼 개울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도롱뇽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손을 담그며 말했다. "이 물은 네 외할머니가 처음 발을 담근 물이야.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곳이지. 오늘은 너 차례란다."

개구락이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물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연못의 한 가운데에 피어 있는 '달수련'이었다. 낮엔 보이지 않던 수련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주 천천히 빛을 내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은색 비늘을 가진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개구락이 앞으로 다가와 앞배 밑을 지나갔다. 그 조용한 물고기는 마치 안내자처럼, 개구락이가 발을 담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에게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처음의 돌'이란단다. 우리 가문에선 이 돌을 연못 바닥에 던지면서 용기를 낸단다." 개구락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약돌을 던졌고,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동심원은 마치 그의 마음속 불안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 동심원은 곧 연못 위에 비친 달빛과 만나며 희미한 빛의 흔들림을 만들었고, 개구락이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조심스레 연못에 발을 담갔다. 물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연못의 바닥은 부드럽고 따듯했다. 엄마는 개구락이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며 말했다. "물은 널 안아주는 거야. 삼키는 게 아니라, 네 몸을 기억하는 거야." 그 말에 개구락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물 위로 띄워보았다. 그 순간, 연못 위로 정확히 보름달이 떠오르며 모든 사물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연못 한가운데, 달수련이 만개하며 환한 빛을 냈고, 그 빛 속에서 개구락이는 천천히 발을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넘어지고, 물을 마시고, 허우적거렸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마치 연못도 함께 응원하는 듯,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돌며 원을 그렸다. 연못

바닥엔 누군가 오래전에 던졌던 조약돌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개구락이의 첫 조약돌도 내려앉았다.

수영을 마치고 연못에서 나온 개구락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물을 이겨냈다는 걸 알았다.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반사된 달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달빛 연못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처음 용기를 낸 순간을 말아야.”

그날 이후 달빛 연못은 개구락이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기억, 엄마의 손길, 첫 용기, 가문의 전통, 그리고 달의 축복이 깃든 성지처럼 남게 되었다.

[연잎밥]

아직 두 다리로 멀리 뛰어오르지 못하던 시절, 개구락이는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던 작은 개구리였다. 마을의 또래들은 연못가에서 깔깔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고 새싹을 한입씩 베어 물며 놀았지만, 개구락이는 그저 가장자리 돌맹이 위에 앉아 떨어질까 봐, 물에 빠질까 봐, 늘 움츠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 엄마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개구락이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밥을 지어줄 거야. 같이 가자.” 엄마가 이끄는 곳은 마을 바깥, 조용한 작은 연못이었다.

그 연못가엔 연잎이 넓게 퍼져 있었다. 엄마는 그중 가장 푸르고 탄탄한 잎을 골라 정성스럽게 씻고, 밥 위에 잣과 은행, 대추를 올려 부드럽게 연잎으로 감쌌다. 바구니엔 이미 불린 찹쌀과 작은 돌솥이 준비되어 있었다.

개구락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왜 밥을 잎으로 싸?” 엄마는 연잎을 물에 살짝 담그며 말했다. “연잎은 흙탕물에서도 가장 깨끗한 곳에 피어나. 밥도 연잎처럼 네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면 좋겠구나.”

돌솥이 달아오르고, 잎사귀 안의 밥이 뜨거운 김을 내며 익어갈 때, 연못가엔 연잎밥의 은은한 향이 퍼졌다. 바람은 조용했고, 새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가까운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엄마는 작은 잎그릇을 만들어 개구락이에게 밥을 한 덩이 떼어주었다. “처음엔 조금씩 먹어. 뜨거우니까.” 개구락이는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다. 잎 향이 코끝을 간질이고, 밥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큰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 밥을 먹을 땐, 네 안의 걱정들도 잎사귀처럼 조금씩 풀어지는 거야.”

개구락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 수면엔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그 위로 연잎이 잔잔히 떠 있었다. 엄마는 그 곁에서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개구락이의 심장을 살짝 간지럽히며 조금씩 마음속 두려움도 풀어주었다.

밥을 다 먹고, 엄마는 개구락이의 손을 잡아 연못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말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조금 더 강해졌겠지? 우리 연잎 하나 띄워보자. 너의 첫 용기가 이 물 위를 잘 흘러가길.”

개구락이는 연잎 한 장을 작은 두 손으로 정성껏 펴고 물 위에 살며시 띄웠다. 연잎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연못 한가운데로 흘러갔다. 달빛은 없었지만, 그날의 햇살은 연못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마음속 연잎밥도, 이 잎도, 조금씩 널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렴.”

그날 이후 연못가에서 먹은 그 첫 연잎밥의 향과 따스함은 개구락이의 마음속 깊이 남아, 그가 두려움에 맞설 때마다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었다.

[취당근]

개구락이는 어릴 적부터 편식이 심했다. 특히 취당근만큼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당근처럼 생겼지만 한입 베어 물면 취나물 냄새가 확 퍼지고, 씹을수록 씹싸래한 향이 코로 역류했기 때문이다. 연못 근처에서는 봄마다 이 채소가 자주 자라는데, 엄마는 “이맘때 먹어야 진짜 약이 된다”며 꼭 식탁에 올리곤 했다.

“이건 그냥 냄새나는 나무야... 차라리 진흙을 먹을래...” 개구락이는 한 번은 그렇게 말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 연잎 이불 속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연잎을 들추고, 작게 웃었다. “너 어릴 때 열 나서 며칠 못 먹었을 때 기억나? 그때 이걸 다져서 죽 끓여줬더니, 눈도 못 뜨던 네가 ‘맛있어...’ 하고 말했단다.”

개구락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지만, “그땐 맛을 몰랐던 거야!” 하고 다시 연잎을 뒤집어썼다.

하지만 사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삼키기 힘들었던 날, 엄마가 입에 넣어준 따뜻한 죽. 그 안에서 씹히던 쫄득한 식감과 풀향기, 그리고 엄마의 손등에 맺혔던 땀방울. 그때는 그게 뭐였는지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따듯했다.

며칠 뒤, 엄마는 개구락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을 준비하며, 한쪽에 조심스럽게 취당근을 곁들여 놓았다. “오늘은 강요 안 할게. 그냥... 옆에만 있어보자.”

개구락이는 도토리묵을 한입 먹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취당근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음... 여전히 이상해.”

“그치만 예전보다 잘 씹었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웃었다.

그날 이후로도 개구락이는 취당근을 좋아하진 않았다. 하지만 취당근이 올라온 날은 엄마가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럴 땐 억지로라도 한 조각은 먹었다.

엄마도 그걸 알아차린 듯,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싫은 것도 때론 꿀꺽 삼키는 거란다” 하고 말하곤 했다.

지금도 취당근은 깨구락이의 싫어하는 음식 1위다. 하지만 유일하게, 먹고 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음식이기도 하다.

[개를리랄로 게를랄라 산]

깨구락이가 아직 아주 작았던 시절, 봄이 오면 엄마는 꼭 하루를 잡아 “개를리랄로 게를랄라 산”으로 나물 캐러 가자고 했다.

이상한 이름 덕분에 친구들은 “진짜 그런 산이 있어?” 하고 웃었지만, 깨구락이에게 그 산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산 입구에는 노란 민들레와 분홍 제비꽃, 그리고 엄마가 “돌콩잎”이라 부르던 이상하게 싹싹 래한 나물이 자라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이건 약초야, 입이 거칠어도 마음은 맑아진단다”라며 한 줍씩 채집해 바구니에 담았다.

깨구락이는 자꾸만 풀과 나물을 헛갈려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물었고,

엄마는 “그건 그냥 풀! 냄새 맡아봐, 향이 없잖아?” 하고 웃으며 손을 잡아끌었다.

산 허리쯤 올라가면 “바위아래봄봄잎”이라는 특이한 나물이 자랐다.

그건 햇빛을 별로 받지 않아서 색이 연하고 줄기가 얇았지만, 엄마는 “이게 부드럽고 맛이 제일 고와”라며 조심스레 캐서 싸주었다.

깨구락이는 그걸 싸서 연잎에 넣고 밥처럼 뭉쳐 먹었는데, 약간 싹싹하면서도 이상하게 고소한 맛이 났다.

입이 얼얼할 때면 엄마는 “앞사귀꿀차”를 만들어줬다.

그건 산중턱 작은 샘물에, 산꿀과 앞사귀 조각을 풀어 만든 달콤한 차였고, 깨구락이는 그걸 제일 좋아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바구니 안에는 온갖 향긋한 잎들이 들어 있었고,

깨구락이의 손엔 엄마가 몰래 싸준 연잎밥이 쥐어져 있었다.

해질 무렵, 산 아래에 내려와 연못이 보이면 엄마는 항상 말하곤 했다.

“이 산은 우리 둘만의 부엌이야. 맛있는 건 다 여기 있지.”

그 이후로도 “개를리랄로 게를랄라 산”은 깨구락이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향기와 웃음, 배고픔과 채워짐, 그리고 엄마의 손길이 깃든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말왕대벌]

깨구락이가 연못가 풀숲에서 혼자 놀던 다섯 살 어느 여름날이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던 오후, 깨구락이는 나뭇잎을 찢어 잎배를 만들고 연못에 띄우며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도 잠잠했고, 물 위는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위잉... 쿠르르르...” 하는 이상한 날갯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일반 벌들과는 전혀 다른, 낮고 울리는 진동 같은 소리.

깨구락이가 고개를 들자, 검은 줄무늬에 노란 갑옷 같은 겹질,

네 갈래로 갈라진 뿔, 그리고 털로 덮인 네 다리를 가진 거대한 곤충이 허공에서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름은 말왕대벌.

연못 북쪽 숲 언덕의 금벌굴에서 나타나는 지배급 야생벌로, 영역에 침범한 생물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놈이었다.

깨구락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말왕대벌은 바로 앞까지 돌진해 날갯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밀려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수면 위로 고개를 겨우 내밀었을 때, 말왕대벌이 날카로운 침을 휘두르며 계속 따라왔다.

엄마가 나타나 그를 끌어낸 건, 몸이 거의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다.

엄마는 연앞으로 깨구락이 몸을 덮으며 벌을 쫓아냈고,

그날 이후 깨구락이는 한동안 연못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깨구락이는 벌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고,

날갯짓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물속으로 숨거나 등을 돌렸다.

엄마는 “벌들은 대부분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 근데 말왕대벌은... 좀 다르지.”라며 조용히 말했다.

말왕대벌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어릴 적 공포와 함께 각인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연못 북쪽 언덕에선 가끔 낮게 웅웅대는 소리가 들린다.

깨구락이는 거길 지나갈 땐 항상 한 손엔 연잎 부채, 다른 손엔 조약돌 몇 개를 꼭 쥔다.

그건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벌이 다가오면 도망치기보다, 조용히 숨고... 준비해. 겁을 먹되, 무릎 꿇진 말아야 해.”

말왕대벌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깨구락이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구락이는 이제, 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갹파리]

깨구락이가 아직 두 발로 점프도 제대로 못하던 어린 시절, 연못 가장자리의 돌틈에서 혼자 놀던 날이 있었다.

비가 막 그치고, 공기엔 습기와 흙냄새가 가득했다. 풀잎 위엔 빗방울이 또르르 맺혀 있었고, 깨구락이는 그걸 툭툭 건드리며 조약돌을 연못에 던져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지잉—” 하고 찢어지는 날갯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벌인가 싶었지만, 훨씬 더 불쾌하고 집요한 느낌이었다.

그게 바로 깡파리였다.

깡파리는 연못가 풀숲에 숨어 사는 파리와 잡몹인데, 주로 개구리 울음소리에 반응해 날아온다.

몸집은 작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이 커다랗고, 반투명 날개가 끈적하게 번들거리며, 날 때마다 “끼잉끼잉” 소리를 내며 상대 얼굴 주위를 떠돈다.

특히 특징은 “놀리기”에 특화돼 있다는 것.

연잎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발등에 내려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입 근처까지 올라와선 다시 도망친다.

그날도 마찬가지로—깡파리는 깨구락이 코 바로 앞을 빙빙 돌며 날아다녔고,

끈적한 날개로 얼굴을 건드리고, 연잎 사이에 숨었다가 다시 튀어나오기를 반복했다.

깨구락이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며 물에 빠질 뻔했고, 그때 엄마가 나타나 깡파리를 손으로 툭 쳐서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깡파리는 네가 무서워하면 더 따라붙어. 눈 마주치고 ‘흥!’ 한 번 불어줘봐. 바보야.”

그날 이후, 깡파리는 깨구락이에게 “무섭진 않지만 제일 짜증나는 존재”가 되었다.

연못가에 나가기만 하면 어딘가에서 “지잉~”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숨바꼭질하듯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심지어 친구들과 노는 중에도 나타나 깨구락이만 괴롭히곤 했다.

“야 너 또 깡파리야? 애한텐 왜 이렇게 집착해?” 하고 친구들이 놀릴 정도였다.

깨구락이는 결국 반격을 결심했다.

연잎을 돌돌 말아 부채처럼 만들어 휘둘렀고, 조약돌을 던져 깡파리 무리를 흩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은 깡파리가 앉을 만한 자리에 연잎끈끈이 덫을 설치해 대기했지만, 녀석은 절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았다.

늘 1초 먼저 반응해서 도망가는, 알뜰지만 어디선가 계속 지켜보는 존재였다.

깡파리는 잡히진 않았지만, 깨구락이는 점점 겁내지 않게 되었다.

이젠 깡파리가 나타나도 “또 왔냐, 이 징글징글한 파리아” 하고 연잎 부채를 휘두르며 대응할 줄 알게 됐다.

엄마는 그걸 보며 웃으며 말했다.

“넌 깡파리조차 교육시켰구나. 재도 너한테 질린 모양이야.”

지금도 연못가 어딘가엔 깡파리가 살고 있다.

깨구락이는 그 녀석을 진짜 친구는 아니지만, 연못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